

주부의 경제적복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wives

이경옥*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Kyung Ok Lee
Dept. Human Ecology, Pusan National Univ.

Abstract

Now in Korea, many factors-for example, unemployment rate rise, consumer prices, corporate restructuring, etc.-are threatening family economy. Thus many households are faced with an economic crisis. In this circumstances, it is the role of households as a subsystem of family system to keep family and household economy stable for the sake of family growth and development. Economic well-being is differentiated by criterion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But it has a large scale of spectrum: household income, asset, consumption, debt and the like. Moreover, these indices have been understood and measured differently by many researchers. In this thesis, we made efforts to distinguish subjective satisfaction from objective satisfaction, and then focus on the form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housewives living in Pusan through questionnaires.

Key Words : Economic well-being, subjective satisfaction, objective satisfaction, income-adequacy, income-stability, feelings of income increase.

I. 서론

1960년대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우리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995년에는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1995년 12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부도와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1997년 12월에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깊은 경기침체로 내수부진과 청년 실업, 고물가와 소비자파산 등 여러가지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가계들이 경제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2003)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IMF 구제 신청을 한 해였던 1998년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득계층 10분위별 월평균소득 자료를 보면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근로자 평균 지출액보다 크게 못미치는 적자가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재무상의 수지악화는 가계관리자인 주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며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다. 실제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부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가계의 경제적 문제이며 가족간의 갈등(부부 갈등, 고부 갈등)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도 갈등의 주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하였으며 가정생활 사건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아도(김명자, 1991; 이정우, 1992; 조혜정, 1994) 생활의 기본 자원인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생활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2004)의 이혼 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의 외도와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아닌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불화가 이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IMF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

* Corresponding author: Kyung Ok Lee
Tel: 019-553-0317
E-mail: deepsea24@dreamwiz.com

어뜨려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는 불행하게도 최근의 이혼율 증가, 각종 경제사범 증가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자살율의 증가로 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치가 되어 있지 못하며 경제적 복지감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조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측정되고 있다.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 학계에서 조사한 복지감 측정애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측정 방법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Pigou(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는데 그는 "경제적 복지가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화폐 측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고 했다. 이런 정의에서 볼때 경제적 복지의 개념 속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측정과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따른 측정이라는 두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가족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측정한 것으로서 측정상의 신뢰성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지만 복지라는 용어가 가지는 개념적 정의에는 주관적 측정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승신 외 4인, 2003). 그리고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한 학자(Hafstrom & Dunsing : 1973, Davis E.P. & Helmick, S.A. : 1985, Groenland : 1989)들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그 방법의 타당성과 개념적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들의 경제적 복지감을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를 두어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감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여러 학자들의 측정방법과 개념적 타당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의 하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영역으로는 Hafstrom & Dunsing(1973)의 개념과 방법을 참고로 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 가계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는 "소득적정감(income-adequacy)"과 Groenland(1989)의 연구를 참고로 일정한 자원 보유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안정감(income-stability)", 마지막으로 Davis, E.P. & Helmick, S.A.(1985)의 연구를 참고로 미래에는 현재의 생활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인 "소득향상감(feelings of income increase)"으로 3구분하여 전반적인 경제적 복지감 수준과 하부 영역별 수준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복지감의 개념정의

가계관리자들이 가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복지감이다. 복지감이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Strumpel, 1973)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성취 정도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Burr, 1995)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임정빈(1990)은 복지감의 개념을 체계론적으로 접근하여 이는 가정관리에 있어 투입, 변환과정 그리고 결과요소 중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주관적인 욕구충족 또는 목표달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으며 박미선(1993)은 복지감을 인간의 심리적 또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인 목표나 기대와 이들 목표의 달성정도로서 현실과의 사이에서 지각하는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경제적 복지감에는 두가지 개념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복지란 용어는 Pigou(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된 이래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Orshanksy(1965), Weisbrod & Hansen(1968), Moen(1980), Cramer(1982), Dunsing(1983), Quinn(198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Wilhelm M.S., Iams D.R. & Rudd J., 1987에서 인용).

그 이후 Fowler(1972)가 경제적 복지를 주관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느낌"으로 정의하고 이를 가계소득에 대한 적정도의 인지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김숙이, 문숙재, 1988에서 재인용)한 이래로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복지감이 더욱 널리 연구되었다.

Strumpel(1973)은 주관적인 경제복지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 효율감(self efficiency), 운명통제력(fate-control) 그리고 가치를 고려하여 현실과 목표 사이의 차이로 보았으며 그 차이가 적을수록 복지감은 높다고 하였다.

Winter(1982)는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이 가계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보다 개인의 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Studies(1984)도 특히 가계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갈수록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하였고 Thoresen(1984)은 가족의 재정적 복지감과 정신적 만족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Lown, 1986에서 재인용).

그 이후 Walson & Fitzsimmons(1973)는 경제적 복지는 객관적으로는 경제적인 여러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복지감이나 만족감으로서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변인으로는 소득적정도의 인지, 소득 만족, 순자산 만족, 저축액 만족, 부채액 만족, 소비수준 만족,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자원의 만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Williams, Nall, Deck(1976, 84)는 복지측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경제적 문제이며 가계의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생활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계의 복지는 경제적 복지로 대변될 수 있다고 하였다.

Moen(1980)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한가지 지표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4가지 차원에서 가족의 재정적 위기를 평가하는 복합적 지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복지감의 4가지 차원이란 객관적/주관적 그리고 실제적/상대적 측면을 가진 객관적-실제적, 객관적-상대적, 주관적-실제적, 주관적-상대적임을 의미한다(Marlowe J. & Godwin D. 1988에서 재인용).

객관적-실제적 측정은 가계의 평균 소득치와 부채를 조사하는 것이며 객관적-상대적 측정은 기준 년도의 실제소득과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을 비교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고 주관적-실제적 측정은 많은 경제적 요인(소득수준, 내구재, 필수재의 구매능력, 재정관리능력, 채무의 정도, 저축정도, 미래를 위한 준비자금)에 대한 만족감을 도출해 내는 것이고 주관적-상대적 측정은 지난 5년 사이에 일어난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와 그 변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을 보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은 실제적이긴 상대적이긴 간에 자원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관적인 것은 실제적, 상대적 모두 만족감의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생활만족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trumpel(1973)은 경제생활만족감을 가계의 목표 및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경제생활 만족감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하위개념들을 모두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Strumpel & Burkhard(1973)의 연구에서도 그는 개인의 경제적 만족은 소득이나 직업 등 객관적 복지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경제적 만족에 관한 평가는 개인의 가치와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변인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앞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복지감은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의 두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

제적 복지감은 주관적 복지감과 객관적 복지감으로 2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만족감과 복지감 측정에 더 적절한 의미로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에 의한 경제적 복지감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복지의 주관적 측정이나 객관적 측정이나로 나누어 볼 때 주관적인 측정에 해당되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 경제적복지감의 하위개념

경제적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 학자들이 이용하는 하위개념으로는 소득 적정감(Hafstrom & Dunsing : 1973)과 소득 향상감(Davis, E.P. & Helmick, S.A. : 1985) 그리고 소득안정감(Davis, E.P. & Helmick, S.A. : 1985)이 있다. 소득적정감이란 현재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며 가정경제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 향상감이란 현재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몇 년 이내(학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3년에서 5년을 기준으로 한다)에 더 향상될 것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 가정경제안정감이란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을 어떠한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에 대한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중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이 소득 적정감과 안정감인데 효용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적정도는 소비 표준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함수이며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의 소비표준에 대한 소비수준의 비례함수이다. 즉 어떤 적정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계가 반드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적정감과 안정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적정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감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둘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며 늘 일치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한 예로 사업자 가계의 경우는 현재 아무리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고 부채를 질 수도 있다.

Groenland(1989)는 경제적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소득 안정감(김경자, 1993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소득 안정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자(1993)는 소득안정감을 Modigliani & Brumberg(1954)의 평생소득가설을 인용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평생소득가설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각 가계의

총 효용은 평생동안 그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때 극대화되지만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는 은퇴나 노화 같은 예측되는 상황의 변화와 가장의 실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가계는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안정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황덕순(1995)은 Modigliani &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을 인용하여 소득 안정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저축의 감소가 더 크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과거 최고 수준의 소비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가계가 주어진 경제 조건하에서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소득 수준이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가계가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소득 안정도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중지되었을 때 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소비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유사시에 한 가계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비수준(빈곤선)을 또는 가계가 최소한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표준을 얼마나 오래(단위는 개월)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김경자, 1993). 이 때 소비수준은 해당기간 동안 한 가계가 부채를 전혀 갚지 않으면서 또는 긴급한 부채(총 부채의 2%로 추정)를 갚아 나가면서 유지해야 할 수준으로서 사회적으로 결정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소득 안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같다.

먼저 Davis & Helmick(1985)는 소득수준, 소득의 규칙성, 소득자원의 다양성, 부양자 비율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이나 질병, 사고와 같은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혹은 은퇴이후의 적절한 생활자원의 확보로 보았으며 Marlowe & Godwin(1988)은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서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려 하였고 Johnson(1989)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 놓은 예비비로서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Voydanoff(1988)는 경제적 안정이 깨어진 상태를 경제적 불안상태라고 보고 고용불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감소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측정한 다음 이의 역수를 취하여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3.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rginia, Richard, Sharon(1985)은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경제적 복지감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고 하여 가계의 소득정도가 경제적 복지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Snyder & Nowak(1984)과 Nowak & Snyder(1986)는 예산의 축소가 가족원의 경제적 복지감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즉 지나친 예산의 축소로 가계 지출을 갑자기 줄일 경우 가족원들의 복지감은 떨어진다고 하여 적절한 소비지출을 강조하고 있다. Deacon & Firebaugh(1988)도 경제적 복지감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성취되므로 지나친 욕구의 억제에는 경제적 복지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Davis & Helmick(1985)은 미래지향적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회고를 하게 되므로 경제적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현재의 자원의 정도와 지출의 정도에 의해 경제적 복지감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즉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가 경제적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연구들을 보면 농가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 한 최은숙, 노자경(1991)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가족원수와 농외 취업자수,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복지감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변수들 중에는 경지 규모와 순자산, 소득빈도, 총소득, 일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인들의 생활만족감을 연구한 김영득(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적음에 따라, 가족수는 많음에 따라, 월수입은 높음에 따라, 월용돈이 많음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경제적복지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복지감의 측정변인으로 소득 적정감, 소득 향상감, 그리고 소득 안정감을 이용하였다.

소득 적정감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은 Patricia(1989)의 측정항목 10개 중에서 4개(삶의 전반적인 질, 가족들의 현재 생활수준, 현재의 총 자산 수준, 현재의 저축잔고)를 채택하였고 Virginia, Richard, Sharon(1985)의 PAR(Perceptions of Adequacy of Resource : 인지된 자원의 적절성) 척도 요인 7개(물리적 환경자원, 육체적 에너지 자원, 시간자원, 재정적 자원, 인간 관계적 자원, 지식, 기술자원, 지역사회자

원)중에서 재정적 자원에 관한 항목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소득 향상감은 Davis & Helmick(1985)의 경우 과거에 비한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로서 만족감을 측정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70% 이상이 감소하였다는 편파적인 응답이 나와 본 논문에서는 현재에 비한 미래의 기대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가계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이것이 현 위기의 관리 결과에 대한 만족감의 측정에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소득 안정감은 소득 단절시의 현재생활 수준 유지 정도와 부채부담 정도, 그리고 예비비의 준비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소득단절시의 안정감 측정에서 김경자(1991)의 연구에서는 가장의 실업이나 갑작스런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경우 현재의 생활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년 수로서 측정하였으나 이 경우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이 불가능하여 소득의 규칙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채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심영(1993)은 가계부채의 절대액으로, Bailard(1986)는 가계의 총 자산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로, Sullivan & Woden(1986)과 Hira & Titus(1989)는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 부채상환에 매월 불입되어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Patricia(1989)는 빚을 갚을 능력과 빚 없이 살 능력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ra & Titus(1989)의 방식을 채택하여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 매월 불입하는 부채액의 비율에 대한 만족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15개의 각 구를 학군을 기준으로 크게 4개의 지역으로 집락을 나누었다(I 집단: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II 집단: 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 III 집단: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IV 집단: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각각의 집락에서 단순임의 추출법에 의해 3개의 구를 뽑고 선정된 집락을 다시 영세민 임대 아파트와 고급 민영 아파트로 집락 구분하고 이들 중에서 단순임의추출로 각각 두 개씩의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는 타계식 직접면접 조사법을 이용하였으나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 이외의 경우는 자계식 배포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배포된 설문

지는 본 조사의 경우 총 430부 였으나 부실응답이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는 모두 제외시켜 399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시기는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15일 까지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이산형 변수는 Frequency값을 구하며 연속형 변수는 Descriptive값을 구하였다. 다음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을 이용하였으며 회전방법은 Anderson-Rubin 값을 구하여 요인들간의 상관이 0이라는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Oblimin을 이용하였다.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그 이외에 다중회귀분석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은 앞과 동일하다. 단지 하나의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하지 않았다.

먼저 KMO값을 구해본 결과 대체로 0.6 이상이면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당한 것으로 보고 0.5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0.921이 나왔으므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하며 샘플링도 양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이고 회전방법은 Keiser 정규화가 있는 Oblimi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각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결과치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결론적으로 주부의 경제적 복지감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KMO값을 볼 때 변수 선정과 샘플링이 적당하고 척도에 이용된 각 문항은 COMMUNALITY값을 볼 때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경제적 복지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결과

설문문항(변수)	item-to-total correlation	factor loading			공유치	Cronbach α
		적정감	항상감	안정감		
satis01. 나는 우리 가게의 한달 평균 총 수입에 만족한다	0.790	0.683			0.630	Standard Cronbach α = 0.817
satis02. 내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0.703	0.606			0.689	
satis03. 가게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만족한다	0.742			0.695	0.680	
satis04. 가게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0.693		0.690		0.629	
satis05. 나는 우리 가게의 소득 대비 저축율에 대하여 만족한다	0.754	0.679			0.689	
satis06. 가게관리를 위한 미래 계획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0.701		0.701		0.691	
satis07. 가게의 현재 총 자산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0.690	0.650			0.623	
satis08. 나는 현재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0.787	0.712			0.723	
satis09. 위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할 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0.789			0.700	0.709	
satis10. 나의 재산증식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0.689		0.653		0.699	
satis11. 재무관리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0.699		0.689		0.608	
satis12.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대로 달성되어져가고 있는 편이다	0.608		0.600		0.695	
satis13. 가게소득이 규칙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0.758			0.709	0.708	
Eigenvalues		6.361	3.061	1.680		

2) 신뢰성 검증

신뢰성검증을 위하여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 Alpha를 구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해 본 결과는 다음 <표 1>에 같이 제시되어 있다. Nunnally(정충영, 1997에서 재인용)의 신뢰성 기준인 0.6을 상회하므로 경제적복지감의 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가게관리자의 인적자원특성 변인

먼저 연령의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중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지속년수를 보면 20년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그 외의 경우는 모두 20%정도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력을 보면 고졸과 대졸이

40%대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생활주기를 보면 과반수를 조금 넘는 52% 정도가 자녀 교육기에 해당되며 다음이 자녀 양육기, 자녀 진수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게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50%정도가 약간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고 20%정도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70% 정도가 가게살림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중중류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하류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 중상류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로 이들의 합계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류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이 창간기획(2000년 10월 13일자)으로 조사한 우리 나라 국민의 소득 계층감 변화추이 결과(1년 전 자신을 중류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절반정도인 51.2%만이 그대로 중류층에 남았고 나머지는 중하류층과 하류층으로 하향이동 하였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상류층과 중중류층의 비

<표 2> 가계관리자의 인적자원변인 특성

	범주	N	%		범주	N	%
연령	20대	43	10.8	지속 년수	5년 미만	88	22.1
	30대	176	44.2		5년이상-10년미만	86	21.6
	40대	106	26.6		10년이상-20년미만	99	24.9
50대이상	73	18.4	20년이상		125	31.4	
학력	국졸	17	4.3	생활 주기	신혼기	39	10.0
	중졸	43	10.8		자녀출산 및 양육기	108	27.1
	고졸	184	46.2		자녀교육기	207	52.0
	대졸	138	34.7		자녀진수기	40	10.0
			축소기		3	0.5	
			노후기		2	0.5	
생활 변화	대학원졸	16	4.0	계층 의식	최 상 류 층	0	0
	많이 나아졌다	3	0.8		상 류 층	0	0
	약간 나아졌다	10.8	2.0		중 상 류 층	20	5.1
	마찬가지이다	46.2	26.1		중 중 류 층	177	44.5
	약간 어려워졌다	34.7	47.5		중 하 류 층	159	40.0
	많이 어려워졌다	4.0	23.6		하 류 층	38	9.5
			최 하 류 층		5	1.0	
남편 직업	무직, 학생, 주부,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 등					39	10.0
	임시고용, 단순노무직					8	2.0
	판매서비스직					20	5.0
	숙련, 반숙련직, 기능직, 생산직					60	15.1
	소규모자영업					69	17.3
	일반회사 사무직, 정부나 공공기관 사무직					121	30.4
	일반전문기술직					67	17.6
아내 직업	고위전문직					15	4.8
	무직, 학생, 주부,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 등					235	59.0
	임시고용, 단순노무직					22	5.5
	판매서비스직					18	4.5
	숙련, 반숙련직, 기능직, 생산직					3	0.8
	소규모자영업					25	6.3
	일반회사 사무직, 정부나 공공기관 사무직					41	10.3
일반전문기술직					47	11.8	
고위전문직					7	1.8	

율이 작아지고 중하류층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이 3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전문기술직과 소규모 자영업이 15% 정도로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에 무직, 정년퇴임자, 연금생활자가 12%정도이며 판매서비스직과 임시고용직이 10%, 전문기술직이 5%이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내의 직업을 보면 60% 정도가 전업주부이며 직업을 가진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과 임시고용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관리자의 물적자원특성 변인

먼저 주수입원을 보면 60%를 조금 넘는 가계가 정기적인 봉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이 20%정도의 사업소득이 차지하고 있고 비정기적인 잡다한 수입이 10%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소득과 각종 정부보조금이 8%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간 실소득을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35%,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계가 30%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1000만원 이하의 도시 빈곤가계가 20%를 차지하였으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계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이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월 소비 지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45%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30%, 50만원 미만이 18%, 15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 이상이 각각 5% 정도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 예금액을 보면 30만원 미만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각각 10%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월 예금액이 전혀 없이 사는 가계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계관리자의 물적자원특성

	범주	N	%		범주	N	%
주 수 입 원	사업소득	83	20.1	월 예 금 액	없다	75	18.8
	정기적인 봉급	240	60.0		30만원미만	200	50.1
	각종정부보조금	21	5.3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62	15.5
	비정기적수입	40	9.5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41	10.2
	재산소득	15	3.3		100만원이상	21	5.3
연 간 실 소득	1000만원미만	82	20.5	부 동 산 순 시 가	5000만원미만	124	30.1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139	35.0		5000만원이상-1억미만	179	45.0
	20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	121	30.4		1억이상-3억미만	82	20.6
	3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56	14.1		3억이상-5억미만	12	3.0
	5000만원이상-1억미만	1	0.2		5억이상-10억미만	13	3.3
	1억이상	0	0		10억이상	2	0.5
월 소 비 지 출 액	50만원미만	73	18.6	총 부 채	없다	41	10.1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40	45.2		100만원 미만	75	18.8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22	30.6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2	6.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9	7.2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8	20.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0	5.1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80	20.2
	300만원이상	15	3.5		10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	101	25.3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21	5.8		3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39	10.0
				5000만원이상	20	5.1	

부동산 순 시가를 살펴보면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인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00만원 미만의 가계가 30%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둘의 비율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1억에서 3억 미만이 20%를 차지하며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 정도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 부채 정도를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가계가 10% 밖에 안되어 거의 대부분의 가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부채로 45%정도였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의 부채가 10%,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 가계도 5%나 차지하고 있었다.

3. 주부의 각 하위 영역별 경제적복지감

주부의 경제적 복지감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살펴보면 평균 2.59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복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하위 영역별로는 차이가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각 항목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살펴보면 최고점수는 소득향상감의 측정 항목중 하나로서 가계의 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3.91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최저점수는 소득안정감의 측정 항목중 하나로

<표 4> 주부의 각 하위영역별 경제적복지감

		평균(표준편차)
소득 적정감 2.65 (0.68)	나는 우리 가계의 한달 평균 총 수입에 만족한다	2.67(0.96)
	내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2.67(0.96)
	나는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저축율에 대하여 만족한다	2.74(1.05)
	가계의 현재 총 자산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63(0.94)
	나는 현재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72(0.93)
소득 향상감 3.07 (0.98)	가계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3.91(1.01)
	가계관리를 위한 미래 계획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81(1.01)
	나의 재산증식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63(0.90)
	재무관리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57(0.95)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대로 달성되어져가고 있는 편이다	3.13(0.86)
소득 안정감 2.57 (0.65)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만족한다	2.30(1.13)
	위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할 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2.65(0.92)
	가계소득이 규칙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2.67(1.28)
	전반적인 경제적 복지감	2.59(0.67)

서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에 2.30의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처럼 같은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매우 큰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복지감을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2.59의 평균값을 보인 전반적인 경제적 복지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소득적정감과 소득안정감으로 각각 2.65와 2.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향상감은 전체 경제적 복지감의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3.07로 나타났다. 즉 미래의 경제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란 평가에 대한 소득 향상감의 경우가 현재 소득의 규칙성이나 변동성에 대한 만족감인 소득 안정감이나 현재 생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소득 적정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감이나 적정감이 현재 생활에 대한 평가라면 향상감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주부들은 현재의 생활은 불만족스러우나 2, 3년 후의 경제생활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Davis & Helmick(1985)이 주장한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생활 수준에 비해 훨

씬 더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들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현재의 경제생활이 어렵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부들의 이러한 기질적 특성으로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균이 3.07 수준으로 미래의 경제생활을 크게 기대하거나 낙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경제생활 안정감은 하위 영역중에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많은 주부들이 현재의 소득수준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볼때 소득이 더 낮아질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적정감을 보면 평균이 2.65로서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이 자신이 기대한 생활에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복지감의 수준은 소득향상감을 제외하면 안정감과 적정감 모두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경제생활에 불만해하며 적절한 경제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경제적 복지감은 삶의 질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항목별로 상관관계를 구하여 본 결과에서도 부적상관이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으며 전 항목이 정적인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적정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과

<표 5> 각 항목별 상관계수

	SATIS0 1	SATIS0 2	SATIS0 3	SATIS0 4	SATIS0 5	SATIS0 6	SATIS0 7	SATIS0 8	SATIS0 9	SATIS1 0	SATIS1 1	SATIS1 2	SATIS1 3
SATIS0 1	1.000												
SATIS0 2	.679***	1.000											
SATIS0 3	.441**	.390**	1.000										
SATIS0 4	.373*	.453*	.316*	1.000									
SATIS0 5	.700***	.642***	.521**	.409*	1.000								
SATIS0 6	.333*	.382*	.335*	.614***	.386*	1.000							
SATIS0 7	.601***	.631***	.442**	.357*	.607***	.411*	1.000						
SATIS0 8	.645***	.622***	.395**	.338*	.568***	.355*	.686***	1.000					
SATIS0 9	.520**	.419**	.656***	.400*	.599**	.312*	.566**	.589**	1.000				
SATIS1 0	.421*	.399*	.404**	.698***	.487**	.662***	.493**	.409*	.499*	1.000			
SATIS1 1	.375*	.392*	.496*	.633***	.578**	.615***	.503**	.446*	.432*	.613***	1.000		
SATIS1 2	.186	.233	.045	.588**	.183	.493**	.182	.091	.165	.547**	.553**	1.000	
SATIS1 3	.290	.181	.577***	.310	.371*	.371*	.340*	.312*	.484***	.223	.297	.066	1.000

소득안정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간에는 대체로 $p < 0.01$ 의 수준에서 0.5전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향상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과는 $p < 0.05$ 수준에서 0.3전후의 약한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좀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상관계수를 구하여본 결과 소득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적정감과 소득안정감간의 상관 0.617에 비해 소득향상감과 소득적정감, 소득안정감간의 상관은 각각 0.509, 0.411로 다소 낮게 나왔다.

위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낮은 경제적복지감을 가지고 있으나 질문 항목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간에 매우 큰 편차가 있고 또한 경제적복지감을 각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소득적정감과 소득안정감은 전체적인 경제적 복지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소득향상감만은 3점이 넘는 평균 점수를 보여 각 하위 영역별로 다소 결과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할 때 하나의 개념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배경변인별 경제적복지감

다음 배경변인별(연령, 학력, 결혼지속년수, 생활주기, 남편과 본인직업, 생활변화, 계층의식, 주수입원, 월예금액, 총부채, 연간실소득, 부동산순시가, 월소비지출액)로 경제적복지감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계층의식, 예금액, 총부채에 따라 복지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층의식을 보면 최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주부의 경제적복지감이 가장 낮았으며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주부의 경제적복지감이 가장 높았다. 중상류층이 상류층보다 만족감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제외하면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경제적복지감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 예금액을 보면 정확하게 순서의 뒤바뀐 없이 매월 예금을 많이 하는 주부일수록 경제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 부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가계의 주부가 경제적복지감이 가장 높았으며 1억 이상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의 주부가 가장 낮은 경제적복지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부채액수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각 하위 영역별 상관계수

	소득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
소득적정감	1.000		
소득향상감	0.509***	1.000	
소득안정감	0.617***	0.411**	1.000

<표 7> 경제적복지감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던컨검증결과

변인	구분	평균	Duncan	F값
계층의식	7(최하류)	1.890	A	30.351***
	6(하류)	1.900 1.900	AB	
	5(중하류)	2.346 2.346	BC	
	4(중류)	2.800 2.800	CD	
	2(상류)	2.901 2.901	CD	
	3(중상류)	3.279	D	
예금액	1(없다)	2.103	A	30.487***
	2(30만원이하)	2.432	B	
	3(50만원이하)	2.587 2.587	BC	
	4(100만원이하)	2.803	C	
	5(100만원초과)	2.991	D	
총부채	7(1억초과)	2.335	A	20.137**
	5(5000만원이하)	2.601	B	
	6(1억이하)	2.601	B	
	4(3000만원이하)	2.605	B	
	3(1000만원이하)	2.609	B	
	2(500만원이하)	2.658	B	
	1(없다)	2.980	C	

** $p < 0.01$ *** $p < 0.001$

다음은 이들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R제곱	F값	유의 확률	B 값	VIF
경제적 복지감	상수	.357	6.951	.001	.131	1.40
	계층의식				.434	
	예금액				.559	
	총부채				-3.09	

분석결과를 가지고 표본 회귀선을 설정해보면

경제적 복지감(Y) = 0.131 + 0.434 * 계층의식 + 0.559 * 예금액 - 3.09 * 총부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즉 경제적복지감은 계층의식과 예금액에 대해서는 정적 기울기를, 총부채에 대해서는 부적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예금액이 많을수록, 총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 복지감은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변수가 경제적 복지감에 대해 가지는 총 설명력은 3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면 예금액이 가장 높으나 1.5밖에 되지 않으므로 1번째 회귀계수의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Durbin-Watson값은 2.1로서 2에 아주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오차 항들간의 상관은 없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한 이들 계수의 추정량들은 모두 받아들인데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가계살림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중중류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하류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 중상류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로 이들의 합계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류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적자원특성을 살펴보면 주수입원의 경우 60%를 조금 넘는 가계가 정기적인 봉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이 20% 정도의 사업소득이 차지하고 있고 비정기적인

잡다한 수입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소득과 각종 정부보조금이 8%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간 실소득을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35%,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계가 30%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월 소비 지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45%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월 예금액을 보면 30만원 미만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각각 10%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월 예금액이 전혀 없이 사는 가계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순 시가를 살펴보면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00만원 미만의 가계가 30%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둘의 비율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 부채 정도를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가계가 10% 밖에 안되어 거의 대부분의 가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부채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주부의 경제적 복지감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살펴보면 평균 2.59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복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적정감과 소득안정감이 각각 2.65와 2.5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소득향상감은 다소 차이가 나는 3.07로 나타났다. 즉 미래의 경제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란 평가에 대한 소득향상감의 경우가 현재 소득의 규칙성이나 변동성에 대한 만족감인 소득 안정감이나 현재 생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소득 적정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감이나 적정감이 현재 생활에 대한 평가라면 향상감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주부들은 현재의 생활은 불만족스러우나 2, 3년 후의 경제생활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각 항목별로 상관관계를 구하여 본 결과 소득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적정감과 소득안정감간의 상관 0.617에 비해 소득향상감과 소득적정감, 소득안정감간의 상관은 각각 0.509, 0.411로 다소 낮게 나왔다.

넷째, 배경변인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을 살펴보면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예금액이 많을수록, 총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복지감이 높았다. 예금액이 많고 부채가 적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가계의 자원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자원 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층의식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의 차이를 보면 스스로 높은 계층의식을 가질수록 경제생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계층의식을 변수로 연구한 예가 없어서 비교는 안되지만 계층의식이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서 심리적 변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계층의식과 경제적복지감이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낮은 경제적복지감을 가지고 있으나 질문 항목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간에 매우 큰 편차가 있고 또한 경제적복지감을 각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적점감과 소득안정감은 전체적인 경제적 복지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소득향상감만은 3점이 넘는 평균 점수를 보여 각 하위 영역별로 다소 결과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할 때 하나의 개념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복지감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의 확립

소득안정감이나 소득적점감은 낮지만 소득향상감을 통해서 복지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우나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도 잘 견디어 오던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성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질 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복지감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 안정감 향상을 위한 고용 안정 정책의 필요

가장의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소득의 안정감이 매우 낮게 나온 점을 볼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원이 있어야하며 퇴직이나 실직을 경험한 경우 이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하락되었던 점을 상기시켜 볼 때 정부의 지원 상한선을 올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대출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용교육의 확대 실시

본 연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가게에서 빚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게의 빚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가게 안정감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게 소득에 맞는 적절한 가게 빚의 비율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각자의 가게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대출과 관련된 신용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저금리 시대에 맞는 재테크 교육의 실시

지금까지 단순히 은행 예금을 통한 저축만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던 주부들이 금리하락과 물가상승이라는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은행 이외의 다른 재테크 수단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주부들에게 경제 상식에 관한 정보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올바른 재테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부들의 소득향상감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북돋워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화의 문제점이 있지만 개별가계의 복지 수준 이해와 소비자교육 기관에게는 주부의 가게관리 능력향상과 가게관리행동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고 효율적인 가게재무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입안자에게는 가게의 복지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경제적복지감, 소득적점감, 소득안정감, 소득향상감

참 고 문 헌

- 김경자(1993). 가게의 경제적 안정도 :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107-118.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1호 203-216.
- 김영득(2003). 원주시 노인의 여가활동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삼지복지논총 제6권.
- 박미선(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 정용선(1999). 한국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제8권 제1호, 81-93.
- 이승신 외4인(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
- 이정우, 오경희(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제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1-18.
-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조미환(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156-169.
- 조혜정, 임정빈(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 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15-27.
- 최은숙,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회* 제2권 제1호.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69-82.
- _____(1995). 도시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urr W.R., Day R.D. & Bahr K.S.(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최연실 외 역, 하우출판사.
-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Hafstrom, Jean L. & Dunsing, Marilyn 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119-132.
- Hira T.K. & Titus P.M.(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Johnson P.J.(1989). Changes in financial practices : southeast asian refuge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41-252.
- Lown J.M.(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no 4, 5-8.
- Marlowe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Patricia & Nelson C.W.(1981).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fall, 34-36.
- Patricia D.E., Helmick & Sandra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Patricia L.D. & Peck C.J.(1988). Welfare programs and proposed reforms, *journal of home economics*, fall, 9-17.
- Pigou, A. G.(1938). *The economics of welfare*(4th ed.). London: MacMillan.
- Strumpel & Burkhard(1973), Economic life - 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 an empirical approach",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ctives, philadelphia : lippincott, 69 - 125.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1099-1115.
- Wilhelm M.S., Iams D.R., Rudd J.(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3-22.

(2004. 08. 05 접수; 2004. 11. 11 채택)